

【논문】

만주 근현대 '골드러시' 시론(試論)*

— '세 가지' 층위에서 본 만주 근대의 금광 개발 —

송인주**

【 차례 】

- I. 서론
- II. 지구사적 층위: 전 지구적 골드러시와 만주 금광 개발
- III. 국가사적 층위: 동아시아 국민국가의 변경 개발과 만주 금광 개발
- IV. 지역사적 층위: 만주 지역의 근대 변경 사회의 변화와 만주 금광
- V. 결론

국문초록

본 논문은 19세기 중엽부터 20세기 전반까지 만주 지역에서 전개된 골드러시 현상을 지구사적, 국가사적, 지역사적 층위에서 새롭게 조망한다.

우선 지구사적 맥락에서 기존의 서구 중심 골드러시 서술을 넘어, 만주 금광 개발이 지구적 금본위제 확산과 전 지구적 골드러시 흐름 속에서 어떤 의미를 갖는지를 분석하였다. 이 과정에서 만주 지역은 러시아, 청조, 일본 등 다양한 제국들의 각축장이 되었으며, 금광 개발을 통해 산업화와 국민국가 건설에 박차를 가했다.

국가사적 층위에서는 만주 금광 개발이 동아시아 국민국가들의 변경 지배 강화 및 국가 체제 재편과 밀접하게 연결되었음을 밝혔다. 청조는 금광 개발을 통해 국경 지역 방어를 강화하고, 새로운 행정 기구를 설치하였으며, 일본은 만주사변 이후 금광을 중심으로 독자적 경제권 구축을 추진했다. 이러한 과정은 만주를 동아시아 국민국가 실험장의 역할로 자

* 이 논문은 2024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NRF-2024S1A5B5A16019685)

** 서강대학교 디지털역사연구소 연구교수.

리매김하게 했다.

지역사적 층위에서는 만주 골드러시가 변경 사회의 급격한 변화를 촉진한 동인임을 분석하였다. 금광 개발은 인구 유입과 도시 발달을 촉진했으며, 금비(金匪)와 같은 특수 집단의 형성도 이끌어냈다. 금광 지대를 중심으로 상업화가 진전되고, 변경 지역의 사회경제적 구조에 심대한 영향을 미쳤다.

결론적으로 만주 골드러시는 단순한 자원 채굴의 차원을 넘어, 동아시아 근현대 변동의 핵심적인 기제로 기능했다. 본 논문은 만주의 골드러시를 통해 동아시아 지역이 지구사적, 국가사적, 지역사적 변동을 어떻게 체험했는지를 통합적으로 분석하고자 했다.

주제어: 골드러시, 만주, 금광, 청, 러시아, 일본, 금본위제

I. 서론

‘금(Gold)’은 고대부터 진귀한 광물로 주목받았다. 고대 국가가 들어선 후부터 인류는 금을 녹여 장신구, 정치적, 종교적 위신재(威信材)로 활용하였다. 고대 이집트 투탕카멘의 황금마스크, 이스라엘 솔로몬 왕의 황금 언약궤, 고대 중앙아시아 스키타이 유목민과 한반도 신라의 금관 등이 그 사례일 것이다. 또한 유럽의 그리스와 로마, 근동 지역에서는 일찍부터 금화가 은화와 함께 고액 화폐로 활용되었다.¹⁾ 그뿐 아니라 금에 대한 인류의 욕구는 인류사에 거대한 전환점을 이끌었는데, 대표적인 사례가 콜럼버스를 위시한 서유럽의 아메리카 대륙 발견일 것이다. 콜럼버스가 대서양을 횡단한 강력한 동기 중 하나가 바로 ‘금’을 확보하려는 것이었다.

그러나 금이 지구사적으로 가장 영향력을 행사하게 된 시기는 바로 19세기라

1) 금이 화폐로 구조되어 사용된 역사상 최초의 사례는 기원전 700년 전후 소아시아 지역의 리디아 왕국으로 알려져 있다(피터 L. 번스타인, 2010, 『금, 인간의 영혼을 소유하다』, 작가정신, 52-58쪽).

고 할 수 있다. 19세기는 '금의 세기(The Century of Gold)'라고 부를 수 있었다. 19세기 이전 '국제통화'는 은이었다. 특히 중국을 비롯한 동아시아 교역에서 은은 절대적인 위치를 차지하였다. 그런데 19세기 영국을 시작으로 유럽 제국주의 국가들이 자국의 화폐가치를 금의 가치에 연동시키는 금본위제(Gold Standard System)을 채택하면서 금은 전 세계적으로 광물로서만 아니라 본위 화폐로서도 중요해졌다. 동아시아에서는 중국이 1930년대까지 은본위제를 고수하면서 '최후의 은 방어선'을 구축하였지만,²⁾ 일본이 1897년 금본위제를 채택하고³⁾ 동아시아에 대한 식민지 확장 전쟁을 진행하면서 금본위제의 영향권 아래에 들었다.

그러한 '금의 19세기'를 더욱 가속화한 것이 바로 전 지구적인 '골드러시' 현상이었다. 골드러시 역사 서술은 대체로 1848년부터 캘리포니아를 중심으로 미국 서부의 금광이 발견되는 것에서부터 시작된다. 그리고 이후 1850년대 오스트레일리아, 남아프리카 등지로 '골드러시' 현상이 확장되면서 전 지구적인 골드러시 열풍으로 전개되었다는 서술로 진행한다. 또한 전 지구적인 골드러시 중에서도 미국의 서부 골드러시가 미국의 서부 개척 역사와 맞물리면서 더욱 주목받는다. 이와 같은 '골드러시' 역사 서술은 상당히 서구와 미국 중심적인 역사 서술이라고 할 수 있었다.

동아시아의 '골드러시' 현상은 위와 같은 서구와 미국 중심적인 골드러시 역사 서술에서 조명되지 못하였다. 하지만 동아시아에서도 19세기 중엽부터 활발한 골드러시 현상이 분명하게 존재하였다. 그중에서도 동아시아의 '발칸'이라고도 묘사된 만주 지역의 경우 동아시아 골드러시의 중심 지역이었다. 만주 지역의 금맥을 둘러싸고 러시아, 청(중국), 일본 등의 제국들은 경쟁하였다. 이들 제국은 만주 지역의 금광 개발을 통해서 산업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했을 뿐 아니라 만주 변경 지역에 대한 지배체제를 새롭게 구축하면서 국민국가 체제 건설도 진행하였다.

2) Austin Dean, 2010, *China and the end of Global Silver, 1873~1937*, Cornell University Press, pp.114-116.

3) Mark Metzler, *Lever of Empire: The International Gold Standard and the Crisis of Liberalism in Prewar Japan*,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2006, p.3; 양동휴, 2012, 「금본위제의 성립은 역사적 진화인가: 복본위제 단상」, 『경제논집』 51, 58쪽.

또한 만주 지역에서의 금광 개발은 '무인지대'와 다를 바 없었던 극동 변경지대의 인구 증가와 사회경제적 변화에 주요한 원동력을 제공하였다.

본고는 19세기~20세기 초 만주의 '골드러시' 역사를 새롭게 조망하고자 한다. 본고는 만주 골드러시에 관한 기존 연구를 크게 3가지 층위에서 정리하는 논문이 될 것이다. ① 지구사적 층위 ② 국가사적인 층위 ③ 지역사적인 층위가 그것이다. 이러한 방식으로 연구의 시야를 전 지구 차원에서 국가, 지역으로 좁혀가면서 만주의 골드러시가 가진 역사적 의미를 새롭게 다층적으로 분석할 것이다. 아울러 이와 같은 연구사 정리를 통해 만주 변경 지역의 근현대사를 지구사적인 차원에서 새롭게 조망하는 시각을 제시하고자 한다.

II. 지구사적 층위: 전 지구적 골드러시와 만주 금광 개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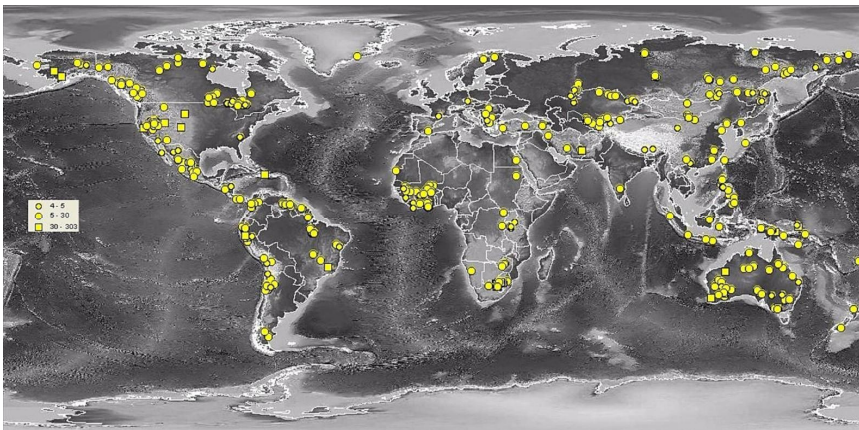
'금의 19세기'라고 부를 수 있을 만큼, 19세기는 전 지구적으로 금의 위상이 높아진 시기라고 할 수 있다. 18세기까지 전 지구적으로 국제통화로서 위세를 떨치던 은의 시대가 점차 금의 시대로 대체되었다. 그러한 '금의 19세기'를 열어젖힌 두 가지 큰 축이 금본위제의 확산과 전 지구적인 '골드러시'의 확대였다. 만주 지역의 근현대 금광 개발도 이와 같은 19세기 전 지구적인 금 중심의 경제 확대 속에서 발생하였고 지구사(Global-history)의 층위에서 재조명할 부분이 있다.

금본위제는 화폐가치를 일정량의 금의 가치에 맞추는 제도를 말한다. 금본위제를 처음 시행한 국가는 영국이었다. 1717년 당시 영국의 조폐국 청장으로 부임한 뉴턴이 금은비가(金銀比價)를 낮게 책정하면서 영국은 금본위제로 이행하였고⁴⁾ 1812년 공식적으로 금본위제를 채택하였다.⁵⁾ 그 후 영국이 산업혁명과 자본주의에 입각한 전 지구적인 상업 활동을 주도하게 되면서 프랑스, 독일, 벨기에, 스위스 등의 유럽의 다른 국가들도 1870년대 전후로 금본위제를 채택하게 되었다. 동

4) 피터 L. 번스타인, 2010, 『금, 인간의 영혼을 소유하다』, 278-283쪽.

5) 양동휴, 2012, 「금본위제의 성립은 역사적 진화인가: 복본위제 단상」, 43쪽.

아시아의 경우 일본이 1897년에 최초로 금본위제를 도입하였는데, 일본은 메이지 유신 이후 근대 국민국가로 탈바꿈하는 과정에서 금본위제를 선진적인 제도로 인식하고 적극적으로 도입하였다.⁶⁾ 중국의 경우 청말 미국 등의 서구 열강의 요구에 따라서 화폐개혁을 시도하고 금본위제를 도입하고자 했으나, 정치적 혼란, 일본의 진출 등 다양한 요인으로 인해 시도하지 못하다가 1934년 미국 루스벨트 정부의 '은 매입법' 공포로 인한 국제 은값의 급등으로 1935년 금본위제를 채택하였다.⁷⁾



[그림 1] 전 세계 주요 금광 위치

(출처: Alexander Yakubchuk, "Russian gold mining: 1991 to 2021 and beyond", *Ore Geology Reviews* 153, 2023.)

금본위제의 전 세계적인 확대에는 여러 가지 요인이 있으나, 1850년대 전후로 전 지구적으로 일어난 골드러시 현상이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였다고 할 수 있다. 골드러시가 시작된 것은 러시아 제국의 시베리아였다. 러시아는 1840년대부터 시베리아 극동의 금광들을 개발하면서 유라시아 동부에서 골드러시를 시작하였다. 다만 골드러시가 전 세계적으로 확대하기 시작한 것은 1848년 미국 캘리포

6) Mark Metzle, 2006, *Lever of Empire*, pp.22-25.

7) Austin Dean, *China and the end of Global Silver, 1873~1937*, p.147.

니아 새크라멘토 일대에서 금맥이 발견된 이후의 일이다. 캘리포니아 금광 발견으로 미국뿐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10만 명의 사람들이 '일확천금'의 꿈을 안고 미국 서부로 이주하였다.⁸⁾ 골드러시의 열풍은 다른 대륙으로까지 이어져서 1851년 오스트레일리아에서도 금맥이 발견되었고⁹⁾ 1886년에는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도 금맥이 발견되어 금광 개발 열풍이 이어졌다.¹⁰⁾ 이와 같은 1850년대 전 지구적인 골드러시는 금 채굴량을 급증케 하여 19세기 금본위제 도입과 확산에도 상당한 영향을 주었다.

골드러시는 19세기 세계 경제사의 차원에서 중요한 사건이기 때문에 관련 연구가 상당히 축적되어 있다. 특히 미국 서부에서의 골드러시는 미국사, 특히 서부 개척사에도 중요한 의미가 있기 때문에 다양한 관련 연구가 존재한다.¹¹⁾ 문화적인 측면에서 골드러시는 미국 대중문화에도 매우 큰 영감을 주어서 골드러시와 서부 개척 시기의 다양한 부랑자 군상들을 다룬 '서부극'이 미국 영화의 주요 소재가 되기도 하였다. 또한 미국 서부의 골드러시에 비해서 훨씬 수량이 적기는 하지만 오스트레일리아의 골드러시,¹²⁾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골드러시,¹³⁾ 남아메

8) 피터 L. 번스타인, 2010, 『금, 인간의 영혼을 소유하다』, 317-322쪽.

9) 피터 L. 번스타인, 2010, 위의 책, 322-326쪽.

10) 피터 L. 번스타인, 2010, 위의 책, 326-330쪽.

11) 북미의 골드러시 역사에 관한 연구는 매우 광범위하고 다양하게 이루어졌는데, 우선 개설적 차원에서 캘리포니아 골드러시를 분석한 대표적인 연구는 Rohrbough, Malcolm J. 2005, *Days of Gold: The California Gold Rush and the American Nation*. Berkeley: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1997; Starr, Kevin. *California: A History*. New York: Modern Library 등이 있고 환경사, 이주사 차원의 연구는 Isenberg, Andrew C. 2005, *Mining California: An Ecological History*. New York: Hill and Wang; Chang, Kornel. 2012, *Pacific Connections: The Making of the U.S.-Canadian Borderlands*. Berkeley: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Johnson, Susan Lee, 2000, *Roaring Camp: The Social World of the California Gold Rush*. New York: W. W. Norton 등이 있으며, 트랜스내셔널적으로 골드러시를 분석한 연구는 López, Jesse R. 2018, "Global El Dorado: The California Gold Rush and Transnational Histories of the Pacific World." *Pacific Historical Review* 87; Chang, David A. 2016, *The World and All the Things upon It: Native Hawaiian Geographies of Exploration*. Minneapolis: University of Minnesota Press 등이 있다.

12) 오스트레일리아의 골드러시에 관한 연구는 Jay Monaghan, 2020, *Australians and the Gold Rush,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Daniel Davy, 2022, *Gold Rush Societies and Migrant Networks in the Tasman World*. Edinburgh University Press 등이 있다.

13) 남아프리카의 골드러시를 다룬 연구로는 Alan H. Jeeves, 1985, *Migrant Labour in South Africa's Mining Economy: The Struggle for the Gold Mines' Labour Supply, 1890-1920*, McGill-Queen's

리카의 골드러시 연구¹⁴⁾도 진행되었다. 그동안의 골드러시 관련 연구는 상당한 성과를 축적했지만 대체로 미국의 골드러시에 집중되었고 서구 제국주의 국가들의 골드러시 중심으로 이뤄진 측면이 강하다. 이러한 기존 연구 경향에서 골드러시에서의 '아시아' 지역의 위상과 역할은 다소 소외되었다.

그러나 최근 들어서 골드러시 연구에서 '아시아'의 역할에 새롭게 주목하는 연구들도 진행되고 있다. 그러한 연구 가운데 주목할 만한 연구는 메이 나이(Mae Nagi)의 연구이다. 메이 나기는 19세기 골드러시의 현상에서 금 광부로 이주한 중국인 노동자(콜리)에 대해 주목하였다. 그녀는 미국 서부, 호주, 남아공 등의 골드러시로 이주한 중국인들을 단순히 광산 노동자로서 분석한 것만 아니라 이주 지역에서 자신들의 사회조직을 구성하면서 사회적 영향력을 행사하며 생존하는 모습을 자세히 분석하였다. 또한 골드러시로 인해 미국 내 중국인들의 수가 급증하면서 미국 사회가 이들을 사회적, 법적으로 차별하고 배제하는 상황도 상세히 묘사하였다.¹⁵⁾ 메이 나이의 연구는 19세기 전 지구적인 골드러시의 숨은 주역이었던 중국인 이주 노동자들을 부각함으로써 그동안 골드러시 역사 서술에서 외면되었던 중국인들을 비롯한 아시아인 노동자들의 역할과 위상을 새롭게 드러냈다는 점에서 연구사적 의의가 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동아시아의 골드러시는 여전히 전 세계적인 골드러시 역사 서술에서 크게 주목받지 못하고 있다. 물론 동아시아의 인도나 중국이 20세기 초반까지 금화보다는 은화를 통화로 사용하면서 서구에 비해 금본위제 도입과 정착이 늦어진 점과 북미 대륙이나 호주 등지에 비하면 금광 개발이 상대적으로 덜 이루어진 점에서 동아시아의 골드러시가 주목받지는 못했다. 하지만 19세기 중엽

University Press; Lucas Ledwaba, Leon Sadiki, 2016, *Broke and broken: The shameful legacy of gold mining in South Africa*, BlackBird Books 등이 있다.

14) 남아메리카의 골드러시를 다룬 연구는 Jay Monaghan, Chile, 2020, *Peru, and the California Gold Rush of 1849*-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등이 있다.

15) Mae Nagi, 2021, *The Chinese Question: The Gold Rushes and Global Politics*, W. W. Norton Company.(메이 나이, 안효상 번역, 2024, 『중국인 문제, 19세기 골드러시, 이주와 노동과 배제』, 책과함께)

동아시아, 특히 만주 지역에서도 여러 국가에 의해 금광 개발이 적극적으로 추진되었고 이러한 만주의 골드러시는 20세기 전반기까지 이어졌음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또한 만주 지역의 근현대 골드러시는 1920~30년대 일본의 식민지 조선 내에서 '황금광 열풍'¹⁶⁾과도 연동되었다고 할 수 있다.

만주 근현대 골드러시를 이끈 선두 주자는 러시아 제국이었다. 러시아 제국은 북미 골드러시가 시작되기 전인 1820년대부터 이미 우랄산맥 동부 시베리아 금광들을 개발하기 시작하였다. 러시아의 금 생산량은 1823년 2톤밖에 되지 않았으나, 1830년 5톤으로 증가하였고 1842년에는 연간 생산량이 11톤까지 증가하였다. 캘리포니아 금광이 발견되기 직전인 1847년경 러시아에서 생산된 금은 당시 전 세계 금의 60%를 차지하였다.¹⁷⁾

만주의 골드러시는 이러한 러시아 제국의 적극적인 시베리아 팽창과 금광 개발의 맥락에서 이루어졌다. 1850년대부터 러시아는 만주의 흑룡강 지역으로 영역을 팽창하면서 그 일대의 금맥을 조사하고 적극적으로 개발하였다. 그러한 러시아의 시베리아-만주에서의 적극적인 금광 개발과 영토 팽창 정책은 미국의 캘리포니아 금광 개발과 서부 개척과도 상당히 유사한 측면이 있다. 그러한 점에서 러시아 제국에 의해 촉발된 만주 지역의 골드러시는 기존 북미 중심의 골드러시 역사 서술에서 탈피할 수 있는 새로운 시각을 제공한다.

러시아가 촉발한 만주 지역의 골드러시는 청조(그리고 중국)와 일본이 전 지구적인 골드러시 현상에 새로운 참여자로 등장하는 계기를 마련했다. 청은 전통적인 중화제국 체제를 계승하여 은과 동전을 주로 사용하는 화폐제도를 고수하였다.¹⁸⁾ 따라서 청조의 경우 19세기 중엽 이전까지 금광 개발에 소극적이었다. 하지만 러

16) 1920~30년대 조선의 '황금광(黃金狂)' 열풍은 주로 문학적 차원에서 연구가 이뤄졌다. 그러한 연구 중에서 황금광 시대의 시대적 배경을 비교적 잘 정리한 것은 전봉관, 1999, 「1930년대 金鑛 풍경과 '黃金狂時代'의 문학」, 『한국현대문학연구』 7: 이미나, 2015, 「1930년대 '금광열'과 문학적 형상화 연구」, 『겨레어문학』 55 등이 있다.

17) 피터 L. 번스타인, 2010, 『금, 인간의 영혼을 소유하다』, 316쪽.

18) 청말 은화, 동전 정책에 대해서는 Austin Dean, *China and the end of Global Silver, 1873~1937*, pp.9-20; 박찬근, 2022, 「19세기 전반기 淸朝 화폐 정책의 원칙과 운용」, 연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등을 참조할 것.

시아가 청의 영역이었던 만주 지역으로 진출하고 이 지역의 금광을 개발하면서 청조도 러시아의 진출에 대응하고 당시 만주 지역의 통치를 위한 재정 및 서구 열강이 청구하는 각종 배상금 확보를 위해 1880년대부터 흑룡강, 우수리강 유역의 금광 개발을 추진하였다. 청조의 만주 지역 금광 개발은 러시아에 의해 촉발된 변경의 위기에 대응하는 임기응변 차원에 가깝기는 했지만 이를 계기로 청조와 그 이후의 중화민국도 전 세계적인 골드러시 흐름에 참여하게 되었다.

동아시아 근대의 새로운 패권 국가로 성장한 일본 역시 만주 지역의 금광 개발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였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일본은 메이지 유신 이후 근대화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영국 등의 유럽 국가들을 본받아서 1897년 금본위제를 도입하였다. 이후 조선과 남만주를 식민지로 확보하면서 동아시아 내의 정치적 패권을 확보하고자 하였고 서구 열강의 경제적 영향력에서 독립하여 자신의 독자적인 경제권을 수립하고자 하였다.¹⁹⁾

일본은 1920년대 후반 대공황을 계기로 서구 중심의 국제질서 체제에서 벗어나 정치, 경제적 독자적 노선 수립을 더욱 가속하였고 그 결과 1931년 일본은 만주사변을 일으킨 후 만주국 정권을 수립하였다. 일본은 이후 일본 본국과 조선, 만주, 중국 대륙을 하나의 경제권으로 묶는, 이른바 일본-만주-지나 경제 공영권 수립 작업에 매진하였는데, 이는 '엔블록'이라는 독자적 통화권을 구축하는 작업이기도 하였다. 이는 더 나아가서 1940년대 '동아신질서', '대동아공영권'으로도 발전하였다.²⁰⁾

20세기 전반 일본 제국의 동아시아 경제권 구축 과정에서 금 수요가 급증하였고, 이는 일본의 식민지 조선과 만주에서 1920~30년대 골드러시가 발생한 중요

19) 일본 근대의 자본주의 확립과 경제적 패권 확장 및 독자적 경제권 수립 시도에 대해서는 Mark Metzle, *Lever of Empire: The International Gold Standard and the Crisis of Liberalism in Prewar Japan*. 미타니 타이치로, 송병권·오미정 옮김, 2020, 『일본 근대는 무엇인가?』, 평사리 등을 참고할 것.

20) Mark Metzle, 2006, *Lever of Empire: The International Gold Standard and the Crisis of Liberalism in Prewar Japan*, pp.40-43; 미타니 타이치로, 2020, 『일본 근대는 무엇인가?』, 217-225쪽; 조경우, 2017, 「1930년대 일본-만주 블록경제와 식민지 개발주의」, 『한국사회학회 심포지움 논문집』, 51-53쪽.

한 원인이었다. 만주국과 일본은 1934년 만주채금회사라는 국책회사를 두어 1930년대 후반 적극적으로 만주 지역의 금광을 개발하였다.²¹⁾ 이러한 점에 볼 때 만주 지역의 골드러시는 러시아가 본격적으로 금광을 개발하기 시작한 1850년대부터 만주국이 존속하는 1945년까지 약 100년간 지속되었음을 알 수 있다.

마지막으로 만주의 골드러시를 지구사적인 차원에서 새롭게 볼 수 있는 부분은 근대 중국인 디아스포라의 형성과 관련한 것이다. 전 세계의 중국인, 즉 화교 디아스포라 연구는 지역적으로도, 방법론적 측면에서도 매우 다양하게 이루어졌다. 중국인 디아스포라는 이미 16세기 동남아 지역에서부터 시작되었지만, 1840년대 아편전쟁 이후 쿨리 무역이 활성화되면서 전 세계적으로 확산하였고 전 지구적 골드러시의 확대로 많은 중국인 노동자들이 금 광부로 미주와 북미, 남아공으로 이주하였다. 미국 샌프란시스코의 경우 1852년 한 해에만 2만 명의 중국인이 이주하였고 오스트레일리아 빅토리아의 경우 1859년 4~5만 명의 중국인 노동자들이 거주하였다.²²⁾ 메이 나이의 연구에서 서술되었듯이 중국인 광산 이주 노동자들은 회관(會館) 등의 동향 조직을 중심으로 이주 지역 내에서 자신들만의 사회를 만들고 정체성을 유지하였고 본국의 가족들과도 긴밀하게 연대하였다.²³⁾

만주 지역에서도 미주나 호주의 사례와 비슷하게 골드러시에 따른 중국인 디아스포라 현상이 발생하였다. 물론 만주 골드러시로 인한 중국인 이주의 규모는 북미나 호주에서의 그것보다 훨씬 작은 편이고, 엄밀히 말해서 만주 지역으로의 이주는 청의 내지에서 변경 지역으로의 이주이기 때문에 해외 이주인 북미, 호주의 이주와는 성격이 다르다. 또한 미주, 호주로 이주한 중국인들의 경우 광둥, 홍콩 등 중국 남부 해안 출신이 다수이지만²⁴⁾ 만주로 이주한 중국인들의 경우 화북의 직예, 산둥, 하남 출신이 많았다. 어떻게 보면 미주와 호주 등지에 정착한 중국인 금 광부들은 중국 남부의 해양 변경을 통해서 중국 밖으로 이주를 한 것

21) 만주채금회사의 개발적 정보에 대해서는 石川留吉, 『滿洲採金株式會社の現況』, 『日本鑛業會誌』 55, 1939를 참고할 것.

22) 메이 나이, 2024, 『중국인 문제, 19세기 골드러시, 이주와 노동과 배제』, 82쪽.

23) 메이 나이, 2024, 앞의 책, 104-116쪽.

24) 메이 나이, 2024, 앞의 책, 77쪽.

이고 만주 지역의 금 광부들은 중국 동북부의 육상 변경을 통해서 중국 밖으로 이주한 것으로도 볼 수 있다.

다만 이러한 차이점에도 불구하고 만주의 골드러시로 인한 중국인들의 이주도 전 지구적인 골드러시 이주의 맥락에서 새롭게 볼 수 있다. 만주 지역 금광으로의 중국인 이주 역시 금광 채굴의 욕구에서 추동되었다는 점에서 전 지구적인 골드러시 이주 차원에서 설명할 수 있다. 또한 만주 지역으로 이주한 중국인 금 광부들 역시 미주, 호주의 골드러시 중국인 디아스포라가 회관이라는 동향조직을 중심으로 그들만의 커뮤니티를 형성한 것처럼 금광 지역에서 금파두(金巴頭)²⁵라는 지도자와 동향조직을 중심으로 그들만의 이주 사회를 수립하였다. IV장에서 서술하겠지만 만주 지역 금광부 집단 중 일부는 자체 무력까지 보유하면서 청조 조정 에 의해서 '금비(金匪)'로 불릴 정도로 변경의 골칫거리가 되기도 하였다. 이렇듯 전 세계적인 골드러시가 미주와 호주 등지의 중국인 디아스포라의 형성을 촉진한 흐름에서 만주의 골드러시 역시 화북 지역의 중국인들을 만주 변경 지대로 이주시키는 중요한 동력이 되었다.

만주 근현대 골드러시는 전지구적인 측면에서 볼 때 미국, 호주, 남아공 지역의 골드러시에 비해 파급력이 상대적으로 낮고 주목을 덜 받았다. 그러나 러시아가 초기 골드러시를 주도하는 과정에서 만주 지역의 금광 개발이 중요한 역할을 하였고 1920년대 세계 대공황 중 일본이 독자적인 엔블록을 구축하는 과정에도 중요한 재원으로 주목받았다. 아울러 19세기 골드러시 열풍에 의해 촉발된 전 세계적인 중국인 디아스포라의 형성 측면에서 볼 때 만주의 골드러시 역시 산둥, 하북 등 중국 내지의 인구를 만주 변경 지역으로 끌어들이는 역할을 했다는 점에서 전 지구적인 골드러시의 흐름에 공명하고 있었다고 볼 수 있다.

25) 파두(把頭)란 청말 이후에 노동자들을 지도, 감독하는 중역을 의미하는 단어로 고용주와 노동자 사이의 중개역을 맡았다. 파두는 여러 산업 직종에 존재하여서 금 광부를 인솔하는 자는 금파두(金把頭), 벌채업자를 인솔하는 자는 목파두(木把頭) 등으로 불렸다.

Ⅲ. 국가사적 층위: 동아시아 국민국가의 변경 개발과 만주 금광 개발

만주의 근현대 금광 개발은 국가사(State-history)적 층위에서 볼 때 동아시아 국민국가 변경 개발과 국가 체제 건설과도 깊이 관련이 있다는 점에서 중요성을 지닌다. 동아시아의 여러 국가가 근현대에 마주한 시대적 과제는 크게 2가지로 1. 서구적 산업화, 2. 국민국가 체제 건설과 확대라고 할 수 있다. 서구의 과학, 산업 기술을 받아들여서 부국강병을 도모하고 국민국가 체제로 전환하고 그 역량을 지배 영역으로 확대하는 것이었다.

동아시아의 국민국가 건설 과정에서 한 가지 중요한 것이 변경 지배를 강화하는 작업이었다. 변경은 국가 간의 주권과 이익이 첨예하게 충돌하는 지역이기 때문에, 국가는 변경 지역의 안정적인 지배를 위해서 변경 지역으로 끊임없이 권력을 투사하였다. 이를 위해 국가는 국경 조사와 협상을 통해서 국경 확정(demarcation)을 시도하고 군대와 초소를 배치하여 국경 지대 방어를 강화하는 작업을 한다. 또한 변경지대의 인적, 물적 자원을 통제하기 위하여 여러 통제 강화 정책을 시행한다. 동아시아의 국민국가들도 국가 건설 과정에서 변경 지배를 강화하는 여러 시도를 하는데, 그러한 사례를 잘 보여주는 지역이 바로 만주 지역이었다.

만주 지역은 근현대 청(중국), 러시아, 조선(한국), 일본의 지배 영역이 중첩되는 '변경'이었다. 따라서 이들 국가의 근대화과 국민국가 건설 과정에서 국가 권력이 침투하고 재편되는 공간이었다. 또한 '만주 모던'이라는 이론에서 설명하는 것처럼, 만주 지역에서 배태된 근대 국민국가 체제와 산업화의 실험 모델은 1945년 이후 중국, 일본, 한국 등의 국민국가 건설과 산업화에 상당한 모델이 되었다.²⁶⁾ 따라서 만주 지역이 동아시아 근현대의 '실험장'이었다는 점에서도 국가사적 층위의 분석이 중요하다.

26) 한석정, 2016, 『만주모던』, 문학과 지성사.

동아시아의 국민국가 건설 과정에서의 만주 지역의 근현대 변경 개발 문제는 상당히 다양하게 연구가 이루어졌다. 우선 청조가 변경 지배체제 재편 작업으로 추진한 동북 변무(東北邊務)²⁷⁾와 동북 신정(東北新政)²⁸⁾에 관한 연구도 다수 존재한다. 이들 연구는 청조의 국경 획정,²⁹⁾ 이민실변과 황무지 개간,³⁰⁾ 주현 체제 도입³¹⁾ 등을 통해서 청조가 전통적인 중화제국 체제가 붕괴하는 과정에서 만주 변경 지역을 어떻게 다시 통합하려 하였는가에 집중한다.

다음으로는 만주국 건국과 체제 건설도 중요한 문제이다. 만주국에 관한 기존 연구에서는 만주국을 일본의 괴뢰정권으로 보는 경향이 강했지만 두아라 등에 의해서 하나의 독립된 근대 국민국가로 보아야 한다는 시각이 대두되었다.³²⁾ 이들 연구는 만주국의 국가 권력이 행정, 군사, 사회조직, 미디어 등 다양한 매개를 통해서 만주 지역 내의 다양한 '민족'들을 어떻게 통합하고 동원하고자 시도 했는지 보여준다.

-
- 27) 동북 변무(東北邊務)란 청조가 1880년~90년대 만주 지역 변경 방어를 강화하기 위해 추진한 여러 작업들을 말한다. 러시아, 조선과의 국경 획정, 변경 초소와 군대 재편, 이민실변과 황무지 개간 등을 포함한다.
- 28) 동북 신정(東北新政)이란 청조가 1905년부터 만주 지역 지배체제를 재편하기 위하여 추진한 정책을 말한다. 장군체제 폐지 및 동삼성총독 파견과 주현제도 설치 등을 포함한다.
- 29) 청말 동북 국경 획정과 관련한 주요 연구는 러시아와 조선과의 국경 확정 문제에 집중되어 있는데, 청-러 국경 획정과 관련한 연구는 S.C.M. Paine, 1996, *Imperial Rivals: China, Russia, and Their Disputed Frontier*, Routledge 등이 있고, 청-조선 국경 획정과 관련된 연구는 김형중, 2018, 『1880년대 조선-청 공동개척과 국경회담의 연구』, 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 Nianshen Song, 2018, *Making borders in modern East Asia: Tumen River demarcation, 1881-1919*,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등이 있다.
- 30) 청말 동북 이민실변 정책과 관련된 연구는 김춘선, 1998, 「1880~1890년대 청조의 '移民實邊' 정책과 한인이주민 실태 연구: 북간도 지역을 중심으로」, 『한국근현대사연구』 8; 荒武達郎, 2008, 『近代滿洲の開發と移民: 渤海を渡つた人びと』, 汲古書院; Patrick Fuliang Shan, 2015, *Taming China's Wilderness: Immigration, Settlement and the Shaping of the Heilongjiang Frontier, 1900-1931*, Routledge 등이 있다.
- 31) 청말 동북 지역 주현 체제 도입과 관련한 연구는 구범진, 2006, 「청대 '만주' 지역 행정체제의 변화: '駐防體制'에서 '州縣體制'로」, 『東北亞歷史論叢』 14, 동북아역사재단; 阿地力艾尼, 2011, 『清末邊疆建省研究』, 黑龍江教育出版社; 高月, 2012, 『清末東北新政研究』, 黑龍江教育出版社 등이 있다.
- 32) Prasenjit Duara, 2003, *Sovereignty and authenticity: Manchukuo and the East Asian modern*, Rowman & Littlefield.(프래신깃트 두아라 지음, 한석정 옮김, 2008, 『주권과 순수성: 만주국과 동아시아적 근대』, 나남: 윤휘락, 2013, 『滿洲國: 植民地的 想像이 잉태한 '複合民族國家』, 혜안.)

만주 지역은 19세기 중엽 이후 자원의 '보고'로 세계적으로 주목받았고 여러 국가가 자국의 산업화를 위해서 적극적으로 만주의 다양한 자원을 개발하였다. 최근 들어서 만주 근현대 변경 개발 문제에서 새롭게 주목받고 있는 주제는 만주 지역을 점거한 국가들이 이 지역의 석탄이나 삼림 자원 등을 어떻게 관리하고 개발하고자 했는지에 대한 것이다. 특히 만주의 대표적 광공업 지대인 무순 탄광³³⁾이나 안산 철광³⁴⁾ 등의 개발 문제이다. 이들 연구는 만주 지역의 석탄, 철 등의 광물이 동아시아 근현대 국가들의 산업화에서 중요한 근간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만주 지역의 자원을 개발하는 과정이 동아시아 국민국가의 관료제와 동원 체제 형성에 큰 영향을 끼쳤음을 밝히고 있다. 대표적인 연구가 빅터 샤우의 연구³⁵⁾인데, 그는 무순 탄광 개발의 역사를 중심으로 동아시아 국민국가들의 체제 건설 과정에서 탄소 에너지 자원 개발에 대한 강력한 욕구와 '탄소기술관료'들의 존재가 중요한 동인이었음을 밝히고 있다.

33) 무순 탄광에 관한 연구는 뒤에 서술할 빅터 샤우의 연구 외에 俞炳富, 2004, 『滿鐵撫順炭鑛の勞務管理史』, 九州大學出版會; 윤휘탁, 2022, 「'근대성'과 '식민성'의 중첩적표상: 만주국 무순탄광의 노무체제와 민족관계」, 『만주연구』 33; 윤휘탁, 2022, 「'개척'·'근대'·'식민'의 중첩적 表象: 만주 광공업도시의 형성, 삶, 민족관계: 撫順市の 사례를 중심으로」, 『만주연구』 34; 鄭超, 2022, 『日本對撫順煤礦殖民經營研究』, 遼寧人民出版社; 王玉芹, 劉毅, 2025, 『滿鐵撫順煤礦研究』, 中國社會科學出版社 등이 있다.

34) 안산 철광의 개발과 관련한 연구로는 松本俊郎, 2010, 『滿洲國から新中國へ-鞍山鐵鋼業からみた中國東北の再編過程 1940~1954』, 名古屋大學出版會; 松本俊郎, 2023, 『滿洲國』以後 中國工業化の源流を考える』, 名古屋大學出版會; Hirata Koji, 2024, *Making Mao's Steelworks: Industrial Manchuria and the Transnational Origins of Chinese Socialism*, Cambridge University Press 등이 있다. 이들 연구는 중화인민공화국 초기 안산 철강 공업 발전에서 만주국의 유산을 강조하고 있다.

35) Victor Seow, 2022, *Carbon Technocracy: Energy Regimes in Modern East Asia*, University of Chicago Press. (빅터 샤우, 이종식 옮김, 2024, 『탄소 기술관료주의』, 발간소금.)



[그림 2] 청말 만주 지역 주요 광산 지도(점선은 산금 지대)

만주 지역의 금광 개발 역시 동아시아 국민국가의 변경 지배와 자원 개발에서 상당히 중요한 주제라고 할 수 있다. 물론 금이라는 광물은 석탄과 석유 등의 에너지원이나 철, 알루미늄 등 자재에 비해 산업화 과정에서 실질적인 역할은 하지 못했다. 또한 석탄, 철광석, 목재 등 만주 지역의 다른 자원에 비해서 그 비중이 상대적으로 낮다. 하지만 19세기 전 세계적으로 금분위제가 정착하면서 여러 국가는 자국의 금을 비축하는 것이 중요 문제가 되었고 러시아와 일본 역시 만주 지역으로 진출하여 국책회사를 세우고 적극적으로 이 지역의 금을 채굴하였다.

러시아의 경우 앞서 서술한 것처럼, 1840년대부터 우랄산맥 동쪽 시베리아의 금광들을 개발하기 시작하였고 당시 전 세계의 60%의 금 생산량을 생산하고 있었다. 러시아는 이러한 시베리아 금광 개발을 극동지역으로 확대하여 1860년대

이후에는 본격적으로 만주 지역으로 진출하여 흑룡강 유역의 금광을 개발하였다. 러시아 정부는 1868년에는 아무르 상류 채금회사, 1871년에는 아무르 하류 채금 회사를 두고 흑룡강과 우수리강 연안의 금광을 적극적으로 채굴하였다.³⁶⁾(표 1)

[표 1] 러시아의 아무르주 및 연해주 일대 금 생산량, 1869~1913
(Victor Zatspine, *Beyond the Amur*, p.63)

연도	개발 광구 수	산금량(kg)
1869	1	819
1874	4	2,457
1879	12	3,751
1884	22	5,290
1889	33	7,502
1899	214	9,009
1904	244	9,615
1909	338	9,107
1910	345	8,927
1911	360	8,206
1912	362	7,239
1913	380	6,650

일본 역시 앞서 설명한 것처럼 1897년 금본위제를 채택하면서 금 비축에 주력 하였다. 러일전쟁 이후 만주 지역으로 진출하면서 관동군, 남만주철도주식회사 등의 다양한 기구를 통해 만주 지역의 금광을 비롯한 광물 자원을 조사하였다. 일본이 본격적으로 만주 금광 개발에 나선 것은 1931년 만주사변과 만주국 건국 이후였다. 일본은 만주를 비롯한 동아시아에 독자적인 엔 블록 구축을 시도하였고 이에 만주 지역의 금광 개발이 더욱 중요하였다. 만주국 정부는 1934년 5월 만주채금주식회사라는 국책회사를 세우고 만주 지역 금광 지대 11곳에 회사의 출장소를 두어 금광을 적극적으로 개발하였다.³⁷⁾(표 2), [표 3])

36) Victor Zatspine, 2017, *Beyond the Amur: frontier encounters between China and Russia, 1850-1930*. UBC Press, pp.62-63.

[표 2] 만주채금회사 소속 흑하성 지역 금광 현황
(岡崎雄四郎, 『北滿の産業』, 滿洲事情案内所, 1942, 198-199쪽)

소속	광구 수	광구 명칭
琿琿縣	22	五世德基, 老公司, 三道溝, 四道溝, 五道溝, 七道溝, 豬壯子河, 西虎拉起, 駱駝腰子, 樺樹排子, 阿凌河, 麒麟屯, 三道溝下溝, 八車力河, 三岔項, 大樺樹林子, 額泥河, 義氣罕, 木太平溝, 寬河, 二道河子, 大克楞子,
呼瑪縣	14	達拉罕, 金龍溝, 二龍溝, 復興溝, 寶興溝, 中溝, 金興溝, 鬧達罕, 五道溝, 三分處, 大溝, 技溝, 老山溝, 罕格分處
嫩江縣	10	博拉格裏, 第一技溝, 阿拉氣, 罕達氣, 杏爾格拉, 霍龍門, 小河力, 葡萄溝, 十五裏河子, 七站二根河
漠河縣	1	德利罕
鷗浦縣	2	富拉罕, 廿一站
巴彥縣	1	罕諾河

[표 3] 만주채금회사의 금 생산량
(滿史會 編, 東北淪陷十四年史遼寧編寫組 譯, 『滿洲開發四十年史』 上, 1988, 779쪽)

연도	산금량(瓦)	금액(엔)
1934	208,362	541,242
1935	1,316,765	3,660,848
1936	3,570,883	10,024,136
1937	3,988,601	21,111,197

또한 만주 지역을 점거한 근현대 국가들은 이 지역의 금광을 개발하는 과정을 통해서 국가 권력을 만주 변경 지대로 투사하는 작업을 진행하였다. 특히 청조는 1880년대 이후부터 만주 지역 금광 개발을 추진하면서 국경 지대에 대한 지배 강화, 행정 기구 재편, 사회 인프라망 구축을 추진하는 등 다양한 방면에서 변경 지배를 재편하는 작업을 추진하였는데, 그러한 청말 만주 지역 금광 개발은 국가 사 차원에서 새롭게 볼 필요가 있다.

먼저 만주의 근현대 금광 개발은 청(중국)과 러시아 간 국경 문제에서 중요한 분쟁 원인 중 하나였다. 청과 러시아는 1850년대부터 서쪽의 신강과 동쪽의 만주

37) 石川留吉, 1939, 『滿洲採金株式會社の現況』, 660쪽.

지역에서 충돌하기 시작하였다. 특히 러시아는 1857년 아이훈 조약과 1860년 북경 조약을 통해서 청으로부터 우수리강 이동의 연해주를 할양받았고³⁸⁾ 표면적으로 만주 지역의 양국 국경은 소강상태가 되었다. 다만 이후 청과 러시아는 1880년대 흑룡강 중, 상류와 두만강 하류 국경 지대의 불확실성으로 인해 이 지역에서 분쟁을 일으키게 되는데, 양국의 분쟁 요인 중 하나가 바로 금광 개발 문제였다.

만주 지역의 금맥은 대체로 시베리아 동부에서 시작되어 흑룡강과 우수리강 유역을 거쳐 두만강 일대까지 약 2,500km 정도 형성되었다.³⁹⁾ 만주 지역의 탄광과 철광이 대체로 만주 지역의 중심부인 요녕성 일대에 집중된 것과는 달리, 만주 지역의 금맥 지대는 1850년대 이후 청과 러시아의 국경 지대를 따라서 집중되었고 그 까닭에 만주 지역의 금광 개발 문제는 양국의 국경 문제와도 직결되었다. 즉 금광 지역이 국경 분쟁의 주요 지점이 된 것이다. 특히 흑룡강 중, 상류 유역에 있는 막하, 쿠마르, 기건하, 관음산 등지의 금광, 봉밀산 등지의 우수리강 유역의 금광 개발을 두고 청과 러시아는 1880년대부터 1910년대까지 지속적으로 대치했으며 군사적인 충돌까지 발생하였다. 특히 러시아는 의화단의 난을 진압한다는 명목으로 1900년부터 1905년까지 만주 지역을 점령하면서 흑룡강 유역의 막하 금광을 점령했다가 러일전쟁 패배로 철수하였고 청은 러시아 군이 철수한 틈을 타서 막하 금광을 회복하였다.

그러한 만주 지역 금광을 둘러싼 국경 분쟁은 청과 그 이후의 중화민국 당국이 흑룡강 유역 변경의 방어 체제를 강화하는 계기가 되었다. 청은 1880년대 이후 흑룡강 유역과 우수리강 유역의 금광을 개발하면서 러시아의 금광 개발을 견제하기 위해서 이들 금광 주변의 방비를 강화하는 조치를 취하였다. 막하 금광의 경우 다구르, 솔론 등 몽골계 변민들을 징집하여 방영을 설치하였고,⁴⁰⁾ 흑룡강 하류 유역의 삼성 금광에서도 허저 등 통구스계 변민들을 광산 경비 병력으로 고용하

38) 김용구, 2018, 『러시아의 만주·한반도 정책사, 17~19세기』, 푸른역사, 96-98쪽; S.C.M. Paine, 1996, *Imperial Rivals: China, Russia, and Their Disputed Frontier*, Routledge, pp.87-91.

39) Victor Zatsepin, 2018, *Beyond the Amur: frontier encounters between China and Russia, 1850-1930*, p.62.

40) 宋小濂, 1989, 「北微紀遊」, 『宋小濂集』, 吉林文史出版社, 26쪽.

여 변민들을 통제하고 광산과 국경 방어를 강화하였다.⁴¹⁾ 아울러 청조는 1880년대부터 1900년대 초까지 몽골과의 경계 지대인 흑룡강 상류부터 중류까지 초소들을 세우는 작업을 실시하였는데 금광이 있는 기건하, 막하, 쿠마르, 관음산 일대 역시 중요 방어 거점으로 초소가 구축되었다.

또한 만주의 근현대 금광 개발은 국가 권력의 확장과 동반하여 만주 변경 지역에서의 사회기반시설 구축을 촉진하였다. 금광이 분포한 흑룡강 중, 상류 지역과 우수리강 일대는 만주 지역에서도 극변(極邊) 지대로 1880년대까지만 해도 도로망, 통신망이 제대로 갖추어지지 않았다. 하지만 청조가 1880년대 이후 이 일대의 금광을 적극적으로 개발하면서 이 극변 지역에도 사회기반시설을 구축하는 작업을 병행하였다.

그 대표적인 경우가 청말 막하금광총판으로 파견된 이금용이 개척한 '황금의 길(黃金之路)'이라는 도로이다. 청조 당국은 이금용의 주도하에 1887년부터 1895년까지 흑룡강장군의 치소가 있는 머르진부터 막하 금광에 이르는 도로를 닦았다.⁴²⁾ 아울러 청조는 막하에서 아이훈에 이르는 흑룡강 수로망도 개척하였다. '황금의 길'과 막하-아이훈 흑룡강 수로 개척으로 청조는 막하 금광 개발에 더욱 진력할 수 있었고 극변 지대인 막하 일대에 인구가 증가하고 도시화가 진행되는 발판이 생겼다. 아울러 청조 당국은 1885년 길림에서 러시아와의 국경 지대인 삼성, 훈춘, 아이훈을 잇는 전신선을 건설하였고 1887년에는 길림에서 치치하르를 거쳐 막하 일대와 가까운 대흑하 지역에 이르는 전신선을 건설하고 치치하르와 대흑하에 전보분국을 설치하였다.⁴³⁾ 이와 같이 청조는 만주 지역 금광 개발을 추진하면서 도로망, 통신망을 변경 지역으로까지 건설하였고 이를 통해 국가 권력을 변경 지역으로 확대하였다.

마지막으로 만주 금광 개발은 만주 지역의 행정 재편 문제와도 깊이 관련이

41) 「三姓副都統慶祺爲漢河金廠擬請另魚皮達子若幹名以資護礦事給署吉林將軍延茂咨文」, 光緒 23年 9月 28日, 『吉林省檔案館藏清代吉林檔案史料選編』, 47冊, 306-309쪽.

42) 謝春河; 吳春娟, 2010, 「黃金經濟背景下清末民初黑龍江中上遊右岸區域近代化初探」, 『黑龍江學院學報』, 16쪽.

43) 謝春河; 吳春娟, 2010, 위의 논문, 17쪽.

있다. 청은 1880년대부터 만주 여러 지역에 주, 현을 설치하면서 성경, 길림, 흑룡강 3개 지역의 장군을 정점으로 하는 만주 지역 군정 체제를 중국 내지와 동일한 민정체제로 전환하기 시작하였다. 청조의 만주 지역에 대한 민정 체제 전환 작업은 1907년 동삼성총독 설치와 파견을 통해서 대체로 완성하였다. 이러한 청말 만주 지역의 행정 체제 재편 과정에서 금광 지대에도 행정 기구가 설치되었다.

우선 흑룡강 중상류 유역 금광 지역의 경우를 보자면, 막하 금광 일대에는 1908년 막하직예청이 설치되었고 쿠마르 금광 일대에는 청초가 멸망한 직후 1912년에 호마현이 설치되었다. 흑룡강 하류 금광 지대로 유명했던 삼성은 청대 흑룡강 하류 통치의 거점인 삼성부도통아문이라는 팔기 군정 기관이 있었으나 1904년 의란부라는 민정 기관으로 전환되었고 우수리강 유역의 금광 지대로 러시아 인들과의 분쟁이 있었던 봉밀산 일대에는 밀산부가 설치되었다. 또한 청말 대표적인 금비였던 한헌종 일가가 웅거한 길림 헝피구 금광 지역에는 1907년 화전현이 설치되었다. 이와 같이 청말 만주 지역 금광 개발을 통해서 변경의 금광 지대에도 국가 권력이 확대되면서 최종적으로는 주, 현 등의 행정 기구가 새롭게 설치되기도 하였다.

일본 관동군에 의해 건국된 만주국 역시 만주 변경 지대의 금광을 개발하면서 변경 지역에 대한 지배를 강화하였다. 막하 금광, 기건 금광, 쿠마르 금광 등이 있는 흑룡강 중상류 일대는 만주국에 있어서도 소련과 국경이 접해 있는 국방상 매우 중요한 지역이었다. 만주국은 건국 후인 1932년 흑룡강 중, 상류 일대에 흑하성을 설치하였고 1930년대 후반부터 소련과의 갈등이 격화하자, ‘북변강화계획’ 일환으로 이 일대에 요새를 다수 수축하고 교통, 통신망을 재편하는 작업을 추진하였다.⁴⁴⁾

만주국은 흑룡강 변경 지대를 비롯한 북변 방어를 강화하는 과정에서 이 지역의 금광 지대를 보호하기 위해 조치하였다. 만주채금회사는 흑하분국을 두어 흑

44) 만주국 시대의 흑룡강 변경 지배 강화의 문제에 대해서는 송인주, 2025, 「만주국의 흑룡강 유역 변경 지배와 ‘특수민족’ 정책: 흑하성의 오로촌인 정책을 중심으로」, 『동북아역사논총』 89를 참조할 것.

하성 내의 50여개 광구를 개발하였다. 그 과정에서 만주국은 흑하성의 금광을 보호하기 위하여 흑하성의 만주국 군대와 흑하성 경찰의 일부를 파견하였다. 이들은 '광산 경찰'로서 금광 일대에 암약하고 있는 불법적인 자체 조직들을 일소하는 임무를 맡았다.⁴⁵⁾ 이를 통해 금광들을 중심으로 한 흑하성 변경 지역의 국가 권력을 확대하고자 한 것이다. 만주국 정권 역시 청조와 마찬가지로 금광 개발을 매개로 공권력을 변경 지역으로 투사하고자 하였다.

위의 사례들은 만주 지역 금광 개발이 동아시아 국민국가의 변경 지배 확장 과정과 밀접한 연관성을 갖고 있었음을 보여준다. 특히 청말 만주 지역의 금광 개발은 단순한 경제적 부를 늘리는 차원이 아니라 국경 확정, 변경 지대의 사회기반시설 확충, 변경 지대의 새로운 행정기구 설치, 공권력 확대 등 변경 지배의 다양한 측면에서 작용을 일으켰다. 만주에서의 국가 주도의 금광 개발, 혹은 금광을 매개로 하는 변경 통치 강화의 양상은 '자유로운 개인'들의 자발적 이주와 시장 논리가 핵심이었던 미국과 호주의 골드러시 양상과는 또 다른 양상을 보인다. 따라서 만주 지역의 골드러시는 국가사 차원에서도 새롭게 조명할 필요가 있다.

IV. 지역사적 층위: 만주 지역의 근대 변경 사회의 변화와 만주 금광

만주 근대의 골드러시는 만주의 근대 변경 사회를 급격하게 변화시킨 동인이 라는 점에서 지역사(Local-history), 혹은 변경사(Borderland-history)적인 층위에서도 새롭게 조명할 가치가 있다. 많은 연구가 지적한 것처럼, 19세기 만주 지역은 정치, 사회, 경제 등 다방면에서 거대한 변화를 겪었다. 청조의 통치하에 있던 만주 지역은 19세기부터 대외적으로는 러시아, 일본을 비롯한 제국주의 열강이 진출하면서 전 세계적 자본주의 경제 구조에 포섭되었고 대내적으로는 청의 만주 지역

45) 滿洲國國務院總務廳情報處, 1936, 『省政彙覽 第三輯 黑河省編』, 19-20쪽.

봉금 정책이 이완하면서 중국 내지에서 한인 인구가 대거 유입하기 시작하였다.

만주인이 건국한 청은 만주 지역을 황실과 팔기의 발상지이자 경제적 독점지역으로 설정하고 봉금 정책을 추진하면서 한인 농민들의 이주와 정착, 경작을 통제하였다.⁴⁶⁾ 그러나 19세기 초부터 봉금 정책이 점차 느슨해졌고 중국 내지의 인구압력이 커지고 재해가 잦아지면서 많은 한인 인구가 만주 지역으로 유입하였다.⁴⁷⁾ 청조 역시 1850년대 러시아의 만주 진출에 대응하는 차원에서 기존의 봉금 정책을 해제하고 한인들의 이주와 황무지 개간을 장려하는 이민실변(移民實邊) 정책을 추진하였다. 이를 통해서 만주의 변외(邊外) 지역이었던 길림과 흑룡강 지역에 한인 농민들이 본격적으로 진출하게 되었고 미개간 지역이었던 이 지역이 농경지로 바뀌게 되었다. 그러한 청말 만주 변경 지역으로의 한인 농민들의 이주와 농경지 개간에 대해서는 이미 선행 연구들이 축적되어 있고 대체로 이 시기부터 만주 지역의 중국화, 농경화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음을 지적하고 있다.

또한 만주 변경 지역의 사회적 변화에서 매우 중요하게 지적되는 것이 바로 철도의 부설이다. 대표적인 철도가 동청철도(중동철도)와 남만주철도이다. 동청철도는 1896년 러시아와 청 사이의 밀약을 통해서 러시아 주도로 부설되었고 만주리에서 시작하여 하얼빈을 거쳐 우수리강 유역으로 빠지는 북만주 지선, 대련에서 시작하여 하얼빈에 이르는 남만주 지선으로 구성되었다. 이 중 남만주 지선은 1905년 러일전쟁에서 승리한 일본에 양도되었고 일본의 남만주철도주식회사에 의해 운영되었다.⁴⁸⁾ 이후 동청철도와 남만주철도의 지선들이 계속 부설되면서 만

46) 청대 만주 지역 봉금 정책과 관련한 연구로는 김선민, 2018, 「청대 만주의 자연환경과 제국의 관리방식」, 『명청사연구』 49; David A. Bello, 2016, *Across Forest, Steppe, and Mountain: Environment, Identity, and Empire in Qing China's Borderlands*,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pp.63-115 등이 있다.

47) 청말 한인들의 동북 이주와 동북 사회 변화에 주목한 연구는 Christopher Mills Isett, 2007, *State, peasant, and merchant in Qing Manchuria, 1644-1862*, Stanford, Calif.: Stanford University Press; James Reardon-Anderson, 2005, *Reluctant Pioneers: China's Expansion Northward, 1644-1937*, Stanford University press; 荒武達郎, 2008, 『近代滿洲の開發と移民: 渤海を渡つた人びと』, 汲古書院; Patrick Fuliang Shan, 2015, *Taming China's Wilderness: Immigration, Settlement and the Shaping of the Heilongjiang Frontier, 1900~1931*, Routledge 등이 있다.

48) 만주 지역 철도 부설을 둘러싸고 러시아-일본 간의 경쟁을 설명한 연구로 김지환, 2022, 「동아시아 철도를 둘러싼 일본과 러시아의 경쟁」, 『만주연구』 34 등이 있다.

주 지역은 전반적으로 철도 네트워크에 속하게 되었다.

만주 지역의 철도 부설은 러시아와 일본 등 제국주의 국가들에 의해 이루어졌으나, 철도 부설의 결과 만주 지역의 사회를 급속도로 변화시켰다. 철도를 통해 인구가 급속도로 만주 지역으로 유입되면서 철도역이 들어선 대련, 하얼빈, 만주리 등의 지역이 근대 도시로 발전하였다. 또한 철도의 부설과 함께 철도 부설과 운영에 중요한 산업인 석탄, 철강 산업이 발전이 이뤄지면서 석탄과 철강을 생산하는 배후 도시들도 발전하였다. 대표적으로 탄도(炭都)라고 불리던 무순, 제철소가 위치한 안산 등의 도시로 이들 도시는 1949년 신중국 성립 이후에도 굴지의 공업지대로 명성을 유지하였다.

만주 변경 지역의 근현대 사회경제적 변화에서 한인 농민의 이주와 농경지 경작, 철도의 부설 등이 매우 중요한 동인이었음은 부인할 수 없다. 하지만 만주 근현대 사회경제적 변화의 추동력이 비단 그것들에 국한된 것은 아니었다. 만주 지역의 골드러시 역시 만주 변경 사회의 변화에 상당한 영향을 끼쳤다. 특히 만주 지역에서도 먼 변경 지역으로 인식되던 길림과 흑룡강 지역의 변화를 이끈 중요 요인이었다.

먼저 만주 근현대의 골드러시는 길림, 흑룡강 등 만주 변경 지역으로의 인구 유입을 촉진하였다. 앞서 2장에서 언급한 것처럼 만주 근현대의 골드러시는 전 세계적인 골드러시의 흐름 속에서 설명할 수 있다. 전 세계적 골드러시가 미국 서부와 호주 등으로 금 광부들의 유입을 촉진했다면 만주 지역의 골드러시 역시 길림, 흑룡강 변경 지역으로 러시아, 중국인 금 광부들의 유입을 촉진하였다. 대표적인 사례가 흑룡강 최북단 막하 지역으로, 막하 금광이 1877년 발견된 이후 러시아인과 중국인들이 모여들면서 1883년 무렵에는 금광 일대에 거주하는 인구가 1만 명을 상회하였다.⁴⁹⁾ 또한 막하 금광 일대에 모여든 금 광부들은 그들만의 자치 정부를 세우고 '젤투가 공화국(Zheltuga Republic)'이라고 명명하였다.⁵⁰⁾ 막하

49) 門倉三能, 『北滿金鐵資源』, 東京: 丸善株式會社, 1936, 18쪽.

50) '젤투가 공화국'에 관해서는 고가영, 「아무르의 캘리포니아: 19세기 러시아 골드러시와 '젤투가 공화국'(1883~1886)」, 『사충』 85, 2015; Victor Zatsepine, *Beyond the Amur: frontier encounters*

이외에도 19세기 후반 흑룡강과 우수리강 유역의 금광 지대 곳곳에는 금을 사적으로 채취하기 위해 중국 내지에서 한인 유민들이 모여들었다.

다만 만주 근현대 골드러시가 촉발한 인구 유입은 변경 사회의 불안정한 상황을 야기하였다.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금비(金匪)의 문제였다. 19세기 만주 지역으로의 한인 인구 유입이 대거 이뤄지면서 이들 한인 이주민 중에는 변경 지역에 제대로 정착하지 못하고 유민이 되거나 더 나아가서는 토비(土匪)가 되는 경우가 많았다. 이 만주 지역의 토비들은 청조가 19세기 이후 아편전쟁과 태평천국의 난, 염군의 난 등을 수습하며 만주 지역에서 제대로 된 행정력, 군사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틈을 타서 더욱 성행하였다. 흑룡강 지역에서는 ‘홍호자(紅胡子)’ 혹은 마적(馬賊) 세력이 성행하였고 압록강 유역 등 삼림지대에는 목재와 삼림 자원을 불법적으로 벌채하는 목비(木匪)가 성행하였다.

금비 집단 역시 ‘목비’와 마찬가지로 만주 지역의 중요 자원 중 하나인 금을 매개로 발생한 토비 집단이었다. 이들은 만주 변경 지역인 길림과 흑룡강 지역의 산금 지대에 적게는 수십, 많게는 수천 명이 응거하여 청조의 허가 없이 금을 채굴하였다. 이들은 광부 조직의 지도자인 ‘금파두(金巴頭)’를 중심으로 자신들만의 조직을 만들고 집단으로 행동하였다. 또한 이들은 산동, 하남 등의 동향 조직으로 뭉치는 경우가 많았고 자신들만의 종교와 규칙을 통하여 결속력을 다졌다.

금비의 대표적인 사례가 길림 협피구 금광에 응거하며 ‘한변외(韓邊外)’라고도 불리면서 세력을 자랑한 한헌종(韓憲琮) 일가이다.⁵¹⁾ 한헌종 일가는 산동성 등주 출신으로 19세기 초 요동으로 이주하였으나 정착하지 못하고 길림 협피구 금광

between China and Russia, 1850-1930, UBC Press, 2017, p.64; 劉潮, 「李金鏞與漠河金礦的創辦與發展」, 齊齊哈爾大學 碩士學位論文, 2012, 4쪽 등을 참조할 것.

51) 한헌종 일가, 즉 ‘한변외’ 집단에 대해서는 이미 미국의 만주사 연구자 Robert H.G Lee가 청말 만주 지역의 한화(sinicization)에 대해 서술하면서 언급하였고(Robert H. G. Lee. 1970. *The Manchurian Frontier in Ch'ing History*, Cambridge: Harvard University Press), 1986년 중국의吉林文史研究所에서 한변외에 관련된 중국, 일본 측 자료들을 정리하여 『韓邊外』라는 책을 발간하였다.(李澍田 主編, 1986. 『韓邊外』, 吉林文史研究所) 이후 孫俊, 2006, 「論“韓邊外”長期存在的歷史原因」, 黑龍江教育學院學報; 董小莉; 郭殿華, 2006, 「“韓邊外”興起與作用探析」, 『東北史地』; 李政, 2017, 「“韓邊外”與夾皮溝金礦變遷(1820-1945)」, 廣西師範大學碩士學位論文; 송인주, 2022, 「청말 길림 광무(鑛務)와 변경지배 재편」, 『만주연구』 33 등이 있다.

에 정착하였다. 한헌종 일가는 이후 협피구 금광의 경제력을 바탕으로 주변의 군소 금비와 토비 세력들을 제압하고 자치조직을 꾸렸다. 청조 당국 역시 한헌종 일가를 군사적으로 토벌하기보다, 한헌종에게 '효충(效忠)'이라는 이름과 청의 관작을 수여하는 등 이들의 '자치권'을 어느 정도 인정하면서 당국의 영향권에 두고자 하였다.⁵²⁾ 한헌종 일가는 1900년대 초 러시아군이 협피구 금광을 점령할 때까지 길림 변경 지역 내에서 상당한 영향력을 휘둘렀다.

한헌종 일가와 같은 금비 집단은 청조와 같은 국가 권력의 입장에서 변경 통치의 큰 장애물이었다. 금비 집단은 국가의 재부(財富)가 되는 자원을 사적으로 채굴하였고 막하의 쥘투가 공화국의 사례처럼 외국인들과 결탁하여 변경 문제를 일으키는 요인이 되기도 하였다. 이에 청조 지방 당국은 1880년대 이래로 길림, 흑룡강 일대 금비 집단들에 대한 군사작전을 수차례 단행했지만 일소시키지 못하였다. 결국 청은 전략을 바꾸어 한헌종 일가의 사례처럼 이들을 회유하거나 당국의 금광 개발에 광부 집단으로 고용하면서 이들을 소멸시키기보다 국가사업에 활용하고자 하였다. 금비의 존재는 19세기 만주 지역의 골드러시가 변경 사회를 열어나 역동적으로 변화시켰는가를 잘 보여주는 사례이다.

금비의 발생과 같은 변경 사회의 부작용도 있었으나 만주 지역 골드러시는 만주 변경 지역으로의 인구를 유입시켜서 상업화와 도시화에 상당한 영향력을 주었다. 만주 변경 지역이었던 길림 지역은 전통적으로 '땅은 넓고 인구는 적은(地大人希)'의 지역으로 청대 전반기에도 팔기가 주둔한 길림성, 닝구타성, 머르진성, 아이훈성 등 일부 주방(駐防) 지역에서만 도시가 발전하였다. 그러나 19세기 중반 청의 봉급 체제가 이완되면서 한인 인구가 유입되어 기존에 도시가 없던 지역에도 사람이 몰려들고 도시가 발달하였다. 금광 역시 인구를 유인하는 중요 요인이어서 만주 변경 지역의 금광 지대 주변으로도 도시가 발달하기 시작하였다.

그러한 대표적 사례가 막하 금광을 비롯한 흑룡강 중상류 유역의 금광 지대이다. 1870년대 이미 1만 명 남짓의 러시아인, 한인들이 모여든 막하와 흑룡강 중

52) 송인주, 2022, 「청말 길림 광무(鑛務)와 변경지배 재편」, 22-23쪽.

상류 일대 금광 지역에서는 1880년대 청조의 금광 개발이 추진되면서 9만 명의 인구가 모여들었다.⁵³⁾ 막하 지역은 15,000명의 인구가 밀집한 도시로 성장했으며⁵⁴⁾ 막하 인근의 관음산 금광은 20,000명의 인구가 밀집한 도시가 되었다.⁵⁵⁾ 또한 1900년대에는 막하 서쪽의 쿠마르 금광에 금 광부들이 모여들면서 쿠마르 금광 주변에는 1908년 금 광부 8,000명이 있었고 1912년경에는 2,000호의 가구에 1만 명의 주민이 존재하였다.⁵⁶⁾

금광 지대로 인구가 집결하면서 자연히 그 주변 지역에서는 상업화가 진전되었는데 막하의 경우 1912년 현성 내에 12개의 상점이 있었는데 1916년에는 총 78개의 상점으로 그 수가 급증하였다.⁵⁷⁾ 관음산 금광 일대의 경우 그 중심지인 태평구의 ‘오리장가’라는 지역에 1만 명이 거주하면서 여러 상점과 기루, 숙박업소들이 즐비하였다.⁵⁸⁾ 흑룡강 하류 유역의 삼성(의란현) 지역 역시 원래 청대 삼성 부도통아문이 주재하여 군사-행정 도시로 출발했으나 1880년대 이래로 금광이 개발되면서 본격적으로 상업 도시로 변모하였다.⁵⁹⁾ 의란현성 서쪽과 주변의 길흥진, 태평진에는 상업 지구가 형성되었다.⁶⁰⁾ 이러한 사례는 만주 지역 골드러시가 만주 변경 사회의 도시화와 상업화를 촉진하였음을 보여주는 좋은 사례이다.

그러한 만주 변경 지대의 금광 개발로 인한 변경 지역 사회의 변동은 앞서 3장의 ‘국가사 차원’에서 제시한 국가의 사회기반시설 건설 및 행정 기구 설치 등과 서로 긴밀히 작용하였다. 막하를 비롯한 흑룡강 유역 금광 지대의 경우 1870년대부터 이미 금 광부들이 청조의 감시를 뚫고 모여들었으나, 1880년대 이후 청조가 이 지역의 금광 개발을 공식적으로 추진하면서 더욱 금 광부들의 이주가 증가하

53) 謝春河; 吳春娟, 2019, 「黃金經濟背景下清末民初黑龍江中上遊右岸區域近代化初探」, 15쪽.

54) 謝春河; 吳春娟, 2019, 위의 논문, 16쪽.

55) 謝春河; 吳春娟, 2019, 위의 논문, 18쪽.

56) 謝春河; 吳春娟, 2019, 위의 논문, 15쪽.

57) 謝春河; 吳春娟, 2019, 위의 논문, 15쪽.

58) 謝春河; 吳春娟, 2019, 위의 논문, 18쪽.

59) 門倉三能, 『北滿金鑛資源』, 23쪽; 曲曉範, 박우 옮김, 2016, 『중국 동북 지역 도시사 연구』, 진인진, 317쪽.

60) 『民國 依蘭縣志』, 「鄉閭門」, “市集”, 45쪽.

였다. 특히 청이 금광 개발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건설한 교통과 전신망 등의 사회 기반시설은 광부들의 이주를 확산시키는 매개체였다. 예를 들면 청이 흑룡강 머르건 성에서 막하 지역을 연결하기 위해 뚫은 '황금의 길'은 이전에는 사람의 접근이 어려웠던 흑룡강 극변 지대로의 인구 이동을 촉진하였다.

아울러 만주 변경의 금광 지대로의 인구 이동은 국가 중앙 권력의 변경 지역 침투와 행정 기구 설치를 유리하게 하였다. 금광 지대의 인구가 증가하면서 국가는 이들을 관리, 보호한다는 명목으로 군대와 경찰을 배치하고 최종적으로는 새로운 행정 기구를 설치하는 것이다. 청조와 중화민국 정부는 앞서 언급한 것처럼, 길림과 흑룡강 금광 지대에 군대와 초소를 배치하였고 막하청, 호마현, 화전현, 의란현, 밀산부 등의 행정 기구를 새롭게 설치하였다. 이러한 작업을 통해서 청과 중화민국 정부는 변경 지배를 강화하였다. 어떻게 보면 금광 개발을 통한 이민실변(移民實邊)을 추진하였다고 볼 수 있다.

위와 같이 만주 변경 지역의 골드러시는 만주의 '지역사' 차원에서도 상당한 변화를 가져왔다. 청이 건국된 17세기 이후 2세기간 청 황실과 만주인에 의해 발상지로 신성시되고 성경, 길림, 흑룡강 장군을 정점으로 한 군정 체제가 시행되었다. 또한 만주 지역은 청 황실과 만주인의 경제적 독점 지역으로 인식되어 중국 내지 한인의 이주가 통제되었다.

그러나 만주 지역은 19세기 이래로 매우 큰 변화를 겪었다. 대외적으로는 러시아와 일본 등의 제국주의 국가의 진출이 이루어지고 이들 국가에 의해 탄광과 철광 등 다양한 광산이 개발되고 철도가 부설되었다. 대내적으로는 청의 봉금 정책이 무너지면서 중국 내지로부터 한인 농민들이 대거 유입하여 만주 지역의 토지를 개간하거나 목재와 금을 채취하였다. 그 과정에서 청은 더 이상 장군 체제와 만주 봉금이라는 조법(祖法)을 유지할 수 없었기 때문에 정책을 전환하여 행정적으로 주현체제로 전환하고 한인 농민들을 적극적으로 이주시켜 황무지를 개간케 하였다. 이와 같은 만주 지역을 둘러싼 대내외적인 변화는 만주 지역의 거대한 사회, 경제적 변화를 야기하였다.

만주 지역의 골드러시도 위와 같은 만주 지역의 거대한 사회경제적 변화를 낳

은 중요한 요인이었다. 금은 19세기 전 지구적인 골드러시 흐름 속에서 만주 지역에서 새롭게 발견된 광물이었다. 만주 지역의 금을 채굴하기 위해 러시아, 중국, 한반도 각지에서 사람들이 몰려들었고 이는 국경 분쟁, 금비의 발생, 길림, 흑룡강 변경 지역의 도시화, 상업화 등 변경 사회의 여러 측면에서 변화를 낳았다. 아울러 만주 지역의 골드러시는 이 지역에 대한 국가의 행정 체제, 경제 및 자원 정책을 변화시키기도 하였다. 따라서 만주 지역의 골드러시는 지역사적 측면에서 볼 때 근현대 만주 지역의 변화에서도 상당한 영향을 끼쳤다고 볼 수 있다.

V. 결론

19세기는 금의 역사에서도 만주 지역의 역사에서도 매우 획기적인 세기였다. 금은 19세기에 들어서서 전 지구적인 통화로 부각이 되었고 사람들은 금을 채굴하기 위해 지구의 여러 곳을 향해 몰려들었다. 만주 지역은 19세기 이전까지는 청조의 동북 변경으로서 봉금 상태였지만 19세기 이후 봉금이 이완되면서 곳곳에서 사람들이 몰려들어 환경을 변화시켰고 제국주의 국가들은 이 지역에서 경쟁하였다. 본고는 19세기 이후 금과 만주 지역이 새로운 변화를 맞았고 만주 지역의 금광 개발이 지구사적, 국가사적, 지역사적인 큰 의미가 있음을 주목하고 이를 제시하고자 하였다.

우선 지구사적인 차원에서 만주 지역의 금광 개발은 전 세계적인 골드러시 현상 속에서 새롭게 이해할 필요가 있다. 19세기 유럽 열강을 중심으로 한 금본위제의 확대와 전 지구적인 골드러시 현상은 금의 19세기를 도래하게 하였다. 다만 기존 19세기 ‘금’ 역사 연구는 대체로 구미에 집중되어 있고 골드러시 연구는 미주와 호주 등에 집중되어 있었다. 하지만 미주와 호주에 못지않게 이미 1840년대부터 유라시아 동부의 만주 지역에서 금광이 개발되고 있었고 그 지역에서는 러시아, 청(중국), 일본 등의 새로운 주체 국가들이 적극적으로 골드러시에 참여하고 있었다. 그러한 점에서 만주 지역의 골드러시는 유럽과 미주에 치우친 전 지구적

인 골드러시 역사 서술에 새롭고 넓은 시야를 제공하리라 본다.

다음으로 국가사적 차원에서도 만주 지역의 골드러시는 동아시아 국민국가 건설과 변경 지배 문제에 새로운 시사점을 던진다. 동아시아의 근대화는 산업화와 국민국가 체제 수립이라는 두 가지 지향점을 갖고 추진되었다. 청(중국), 일본, 러시아는 만주 지역의 금광 개발을 통해서 산업 발전과 재정 확충을 추구했으며 만주 변경 지역에 대한 국민국가의 권력을 확대하고자 하였다. 특히 청은 만주 지역의 금광을 개발하면서 국경의 금광 지대에 군사력을 증강하고 도로와 전신망 등 설비를 구축하는 한편 금광 지대에 새로운 행정기구를 설치하였다. 이는 만주 지역의 금광 개발이 국가사적으로 동아시아 국민국가의 재정 확충과 변경 지배 확립에 상당한 영향을 끼쳤음을 보여준다.

마지막으로 지역사적 차원에서 만주 지역의 골드러시는 만주 지역의 근현대사에 새롭게 접근하는 디딤돌의 역할을 한다. 19세기 이래로 만주 지역 변경 사회는 거대한 변동을 겪었다. 제국주의 열강에 의해 광산 개발과 철도 부설이 이뤄졌고 중국 내지에서 한인들이 대거 유입하면서 도시화, 상업화가 진전되었다. 만주 지역의 골드러시 또한 이러한 지역 변동에 한몫했는데, 금광 지역으로 광부들이 모여들면서 금광을 중심으로 도시가 형성되고 상업이 이루어졌다. 특히 19세기 만주 지역에서는 금광 지대에 모여든 한인 유민들이 '금비'가 되어 국가 권력에 대항하기도 하였는데, 금비의 존재는 골드러시가 낳은 만주 지역 근현대의 독특한 현상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한 점에서 만주 지역의 골드러시는 만주 지역 근현대사를 새롭고 다양하게 볼 수 있는 프리즘이라고도 하겠다.

본고는 만주 지역 골드러시에 대한 기존의 논의를 정리하는 연구사 정리이자 새로운 역사학적 접근 방법을 제시하는 시론(試論)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본고는 구체적인 사료 분석 작업보다는 기존 관련 연구를 정리하면서 종합적이고 거시적인 차원에서 만주 지역의 골드러시를 조망하는 데에 초점을 맞추었다. 만주 지역의 골드러시 연구가 어떠한 역사학적인 새로운 의미를 갖는지를 규명하는 것이 본고의 1차 목표이다. 만주 지역의 골드러시가 시대에 따라 어떠한 양상으로 진행되었는가, 그것이 동아시아 국민국가의 확립과 어떻게 연관되었는가, 아울러

만주 지역의 변경에 어떠한 영향을 끼쳤는가 등의 여러 각론은 앞으로의 후속 연구를 통해서 구체적으로 밝히고 정리하고자 한다.

참고문헌

1. 사료

- 岡崎雄四郎, 1942, 『北滿の産業』, 滿洲事情案内所
滿洲國國務院總務廳情報處, 1936, 『省政彙覽 第三輯 黑河省編』
門倉三能, 1936, 『北滿金鑛資源』, 東京: 丸善株式會社
『民國 依蘭縣志』
「三姓副都統慶祺爲漠河金廠擬請另魚皮達子若幹名以資護礦事給署吉林將軍延茂咨文」, 光緒 23
年 9 月 28 日, 『吉林省檔案館藏清代吉林檔案史料選編』, 47 冊.
石川留吉, 1939, 「滿洲採金株式會社の現況」, 『日本鑛業會誌』 55
宋小濂, 1989, 「北徽紀遊」, 『宋小濂集』, 吉林文史出版社
李樹田 主編, 1986, 『韓邊外』, 吉林文史研究所

2. 연구서

- 高月, 2012, 『清末東北新政研究』, 黑龍江教育出版社
김용구, 2018, 『러시아의 만주·한반도 정책사, 17~19세기』, 푸른역사
김형중, 2018, 『1880년대 조선-청 공동감계와 국경회담의 연구』, 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
滿史會 編, 東北淪陷十四年史遼寧編寫組 譯, 1988. 『滿洲開發四十年史』 上, 下
미타니 타이치로, 송병권·오미정 옮김, 2020, 『일본 근대는 무엇인가?』, 평사리
阿地力艾尼, 2011, 『清末邊疆建省研究』, 黑龍江教育出版社
松本俊郎, 2010, 『滿洲國から新中國へ-鞍山鐵鋼業からみた中國東北の再編過程 1940~1954』,
名古屋大學出版會
松本俊郎, 2023, 『滿洲國』以後 中國工業化の源流を考える』, 名古屋大學出版會
王玉芹, 劉毅, 2025, 『滿鐵撫順煤礦研究』, 中國社會科學出版社
俞炳富, 2004, 『滿鐵撫順炭鑛の勞務管理史』, 九州大學出版會
윤휘탁, 2013, 『滿洲國: 植民地的 想像이 잉태한 '複合民族國家』, 혜안
鄭超, 2022, 『日本對撫順煤礦殖民經營研究』, 遼寧人民出版社
취샤오판, 박우 옮김, 2016, 『중국 동북 지역 도시사 연구』, 진인진
피터 L. 번스타인, 2010, 『금, 인간의 영혼을 소유하다』, 작가정신
한석정, 2016, 『만주모던』, 문학과 지성사
荒武達郎, 2008, 『近代滿洲の開發と移民: 渤海を渡つた人びと』, 汲古書院
Alan H. Jeeves, 1985, *Migrant Labour in South Africa's Mining Economy: The Struggle for the Gold Mines' Labour Supply, 1890-1920*, McGill-Queen's University Press

- Andrew C. 2005, *Mining California: An Ecological History*. New York: Hill and Wang
- Austin Dean, 2010, *China and the end of Global Silver, 1873~1937*, Cornell University Press
- Chang, David A. 2016, *The World and All the Things upon It: Native Hawaiian Geographies of Exploration*. Minneapolis: University of Minnesota Press
- Chang, Kornel. 2012, *Pacific Connections: The Making of the U.S.-Canadian Borderlands*. Berkeley: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 Christopher Mills Isett, 2007, *State, peasant, and merchant in Qing Manchuria, 1644-1862*, Stanford, Calif. : Stanford University Press
- Daniel Davy, 2022, *Gold Rush Societies and Migrant Networks in the Tasman World*, Edinburgh University Press
- David A. Bello, 2016, *Across Forest, Steppe, and Mountain: Environment, Identity, and Empire in Qing China's Borderlands*,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 Isenberg, Johnson, Susan Lee, 2000, *Roaring Camp: The Social World of the California Gold Rush*. New York: W. W. Norton
- Hirata Koji, 2024, *Making Mao's Steelworks: Industrial Manchuria and the Transnational Origins of Chinese Socialism*, Cambridge University Press
- James Reardon-Anderson, 2005, *Reluctant Pioneers: China's Expansion Northward, 1644-1937*, Stanford University press
- Jay Monaghan, 2020, *Australians and the Gold Rush*,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 Jay Monaghan, 2020, *Chile, Peru, and the California Gold Rush of 1849*,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 Lucas Ledwaba, Leon Sadiki, 2016, *Broke and broken: The shameful legacy of gold mining in South Africa*, BlackBird Books
- Mae Nagi, 2021, *The Chinese Question: The Gold Rushes and Global Politics*, W. W. Norton Company. (메이 나이, 안효상 번역, 2024, 『중국인 문제, 19세기 골드러시, 이주와 노동과 배제』, 책과함께.)
- Mark Metzle, 2006, *Lever of Empire: The International Gold Standard and the Crisis of Liberalism in Prewar Japan*,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 Nianshen Song, 2018, *Making borders in modern East Asia: Tumen River demarcation, 1881-1919*,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송넨선, 이원준·이지영 옮김, 2022, 『두만강 국경 쟁탈전, 1881~1919』, 너머북스.)
- Patrick Fuliang Shan, 2015, *Taming China's Wilderness: Immigration, Settlement and the Shaping of the Heilongjiang Frontier, 1900~1931*, Routledge
- Prasenjit Duara, 2003, *Sovereignty and authenticity: Manchukuo and the East Asian modern*, Rowman & Littlefield. (프래신깃트 두아라 지음, 한석정 옮김, 2008, 『주권과 순수성: 만주국과 동아시아적 근대』, 나남.)

- Robert H. G. Lee. 1970 *The Manchurian Frontier in Ch'ing History*, Cambridge: Havard University Press
- Rohrbough, Malcolm J. 1997, *Days of Gold: The California Gold Rush and the American Nation*. Berkeley: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 S.C.M. Paine, 1996, *Imperial Rivals: China, Russia, and Their Disputed Frontier*, Routledge
- Starr, Kevin, 2005, *California: A History*. New York: Modern Library
- Victor Seow, 2022, *Carbon Technocracy: Energy Regimes in Modern East Asia*, University of Chicago Press.(빅터 샴, 이종식 옮김, 2024, 『탄소 기술관료주의』, 빨간소금.)
- Victor Zatzepine, 2017, *Beyond the Amur: Frontier encounters between China and Russia, 1850-1930*. UBC Press

3. 연구논문

- 薑小莉; 郭殿華, 2006, 「“韓邊外”興起與作用探析」, 『東北史地』
- 고가영, 2015, 「‘아무르의 캘리포니아’: 19세기 러시아 골드러시와 ‘젤투가 공화국’(1883~1886)」, 『사충』 85
- 구범진, 2006, 「청대 ‘만주’지역 행정체제의 변화: ‘駐防體制’에서 ‘州縣體制’로」, 『東北亞歷史論叢』 14, 동북아역사재단
- 김선민, 2018, 「청대 만주의 자연환경과 제국의 관리방식」, 『명청사연구』 49
- 김지환, 2022, 「동아시아 철도를 둘러싼 일본과 러시아의 경쟁」, 『만주연구』 34
- 김춘선, 1998, 「1880~1890년대 청조의 ‘移民實邊’ 정책과 한인이주민 실태 연구: 북간도 지역을 중심으로」, 『한국근현대사연구』 8
- 박찬근, 2022, 「19세기 전반기 清朝 화폐 정책의 원칙과 운용」, 연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謝春河; 吳春娟, 2010, 「黃金經濟背景下清末民初黑龍江中上遊右岸區域近代化初探」, 『黑龍江學院學報』
- 孫俊, 2006, 「論“韓邊外”長期存在的歷史原因」, 黑龍江教育學院學報
- 송인주, 2022, 「청말 길림 광무(鑛務)와 변경지배 재편」, 『만주연구』 33
- 송인주, 2024, 「청말 길림-흑룡강 鑛務와 동북 국경 지역 지배 재편(1860~1911)」, 『명청사연구』 60
- 송인주, 2025, 「만주국의 흑룡강 유역 변경 지배와 ‘특수민족’ 정책: 흑하성의 오로촌인 정책을 중심으로」, 『동북아역사논총』 89
- 劉潮, 2012, 「李金鏞與漠河金礦的創辦與發展」, 齊齊哈爾大學 碩士學位論文
- 윤휘탁, 2022, 「‘근대성’과 ‘식민성’의 중첩적표상: 만주국 무순탄광의 노무체계와 민족관계」, 『만주연구』 33

- 윤휘탁, 2022, 「'개척'·'근대'·'식민'의 중첩적 表象: 만주 광공업도시의 형성, 삶, 민족관계: 撫順市의 사례를 중심으로」, 『만주연구』 34
- 이미나, 2015, 「1930년대 '금광열'과 문학적 형상화 연구」, 『겨레어문학』 55
- 李政, 2017, 「“韓邊外”與夾皮溝金礦變遷(1820-1945)」, 廣西師範大學碩士學位論文
- 전봉관, 1999, 「1930년대 金鑛 풍경과 '黃金狂時代'의 문학」, 『한국현대문학연구』 7
- 조정우, 2017, 「1930년대 일본-만주 블록경제와 식민지 개발주의」, 『한국사회학회 심포지움 논문집』
- Alexander Yakubchuk, 2023, “Russian gold mining: 1991 to 2021 and beyond”, *Ore Geology Reviews* 153
- López, Jesse R, 2018, “Global El Dorado: The California Gold Rush and Transnational Histories of the Pacific World.” *Pacific Historical Review* 87

투고일: 2026년 03월 21일 심사완료일: 2026년 04월 19일 게재확정일: 2026년 04월 27일

■ Abstract ■

The Manchurian Gold Rush : Global, National, and Local Perspectives

Song, Inju(Sogang University)

This study offers a preliminary analysis of the gold rush in Manchuria from the mid-19th to the early 20th century, examining it across global, national, and local levels. At the global level, the paper moves beyond Western-centered narratives of gold rushes to analyze how gold mining in Manchuria functioned within the expansion of the global gold standard and broader transnational gold rush dynamics. In this context, Manchuria emerged as a contested arena among imperial powers—including Russia, the Qing dynasty, and Japan—each of which accelerated industrialization and nation-state formation through the expansion of gold mining.

At the national level, the paper highlights how gold mining in Manchuria was closely tied to state-building and frontier governance in East Asia. The Qing dynasty reinforced border defenses and restructured administrative systems through mining initiatives, while Japan, after the Manchurian Incident, pursued the formation of an independent economic bloc centered on gold development.

At the regional level, the Manchurian gold rush is analyzed as a driving force behind rapid socio-economic transformations in frontier society. Gold mining stimulated population influx and urban growth, while also giving rise to groups such as (gold bandits). Centered on mining zones, commercialization advanced rapidly and significantly reshaped the demographic and economic landscapes of the remote borderlands.

In conclusion, the Manchurian gold rush functioned as a critical driver of modern transformations in East Asia. By examining this phenomenon across global, national, and regional dimensions, this paper provides an integrated account of how Manchuria experienced and mediated broader historical change.

Key words: Gold Rush, Manchuria, gold mining, Qing dynasty, Russia, Japan, gold standard